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2



▶ 73회 예고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아버지 아쇼까왕을 만나러 빠딸리뿌뜨라성으로 온다. 아쇼까왕은 두 남매를 만난 뒤, 세 번째 부인 데비가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 한다. 아쇼까왕은 두 남매를 다르마 별궁으로 보낸다.

꾸날라, 두 눈을 뽑히다

탁실라에 도착한 특사 일행은 우두머리 대신인 라주까에게 환대를 받았다. 라주까는 부왕의 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아쇼까왕의 지시를 직접 받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주까는 인두강 강변 나루터까지 탁실라 신하들을 이끌고 나와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특사 단장은 탁실라에 온 용건부터 말했다.

"대왕님께서 부왕님께 전하라는 하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부왕비님과 아드님을 그리워하시는 데 큰 위로가 되겠소."

꾸날라 부왕비가 향수병에 걸려 어린 두 아들 삼빠딘과 다샤라타를 데리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꾸날라 부왕은 눈에 띄게 외로워했던 것이다.

특사 일행은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은 뒤 라주까를 호위하던 군사 지휘관을 따라갔다. 탁실라 성문에 들자마자 악단의 환영연주가 울려 퍼졌다. 특사 일행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 꾸날라 부왕을 알현하고 하사품을 올렸다. 꾸날라 부왕은 아내가 빠딸리뿌뜨라로 가버린 뒤 웃음을 잃고 있다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왕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니 감격스럽소!"

"궁중악단 악장이 잠부띠바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후라고 했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 왕비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꾸날라 부왕이 호감을 품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었다. 꾸날라 부왕은 하사품으로 온 옛 까시국 제품인 비단 도티와 바지를 만져보고는 흐뭇해했다.

"난 이곳 탁실라의 거친 옷만 입을 수밖에 없었다오. 까시 비단은 장미꽃잎처럼 부드럽고 아름답다오."

"단장은 언제 떠나시오?"

"저희들은 특별한 용무가 없으므로 피로가 풀리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며칠간이라도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오. 내가 특사 일행을 위해 연회를 한 번 열어주겠소. 만찬 때는 내가 공후를 연주해 그대들을 즐겁게 해주겠소."

친위대 조장은 꾸날라 부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밀봉한 봉투에 대한 의구심이 솟구쳤다. 띠쉬아락시따 왕비가 왕명을 왜 자신에게, 그것도 탁실라를 떠나는 날 꾸날라 부왕에게 직접 전하라고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밀봉한 봉투가 밤새 친위대 조장의 머리를 짓눌렀다. 아무런 의심 없이 띠쉬아락시따 왕비에게 받았지만 탁실라에 온 뒤에야 밀봉한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던 것이다.

'이럴 때는 어찌할 것인가?'

날이 새자, 특사 단원들은 탁실라성 밖의 유원지로 관광을 나갔다. 그러나 친위대 조장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안에 남았다. 친위대 조장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라주까를 찾아 왕궁으로 들어갔다. 마침 라주까가 친위대 조장을 멀리서 보고 맞아주었다.

"특사 단장을 따라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인가?"

"이제 탁실라도 안전하다고 해서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성 밖 몇 요자나까지는 안전하다네."

"라주까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인가?"

"대관님은 대왕님의 명을 직접 받는 라주까이시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시게."

"빠딸리뿌뜨라에서 떠날 때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이 저에게 대왕님의 명이라며 밀봉한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는 날 부왕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왕님의 공적인 명이 아닐세."

라주까의 단호한 말에 친위대 조장은 고개를 뒤로 젖힐 만큼 놀랐다. 그러나 라주까는 미소를 희미하게 지으며 말했다.

"대왕님께서 공적인 명령서를 그렇게 전할 리 없네. 특사 단장이 있잖은가? 가족 간에 사사로운 당부라서 왕비님을 통하셨겠지."

라주까는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화제를 바꾸었다.

"친위대장은 잘 있는가?"

"대왕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깔라따까 수상님이 키웠지. 마침내 대왕님의 눈에 들었고. 그러니 그대도 대왕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에게 밀봉한 봉투를 떠넘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라주까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서였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의 접견실을 나가려고 일어났다. 간밤에 품었던 의문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나가려고 하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라주까가 말했다.

"밀봉한 봉투를 가져왔으니 펴볼 수 없겠는가?"

"대왕님의 명이 들어 있는 편지를 어떻게 펴볼 수 있겠습니까?"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의 언행이 조금은 석연찮고, 나는 대왕님의 명을 직접 받는 라주까가 아닌가? 사적인 당부라면 대의를 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친위대 조장은 순간적으로 한 시름 놓았다. 라주까가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라고 하니 도대체 아쇼까왕의 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친위대 조장은 라주까에게 밀봉한 봉투를 내밀었다. 라주까가 밀봉한 봉투를 개봉했다. 문서를 보는 순간 라주까는 물론 친위대 조장까지 크게 놀랐다. 아쇼까왕이 꾸날라 부왕에게 끔직한 벌을 내리는 명령서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문서였다. 특사 단장을 통해서는 하사품을 내리고, 반대로 친위대 조장 편에 이런 가혹한 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했다. 라주까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마우리아왕국 국새가 틀림없으니 대왕님의 명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주까는 다시 한 번 국새를 유심히 살펴본 뒤 냉정을 찾았다. 친위대 조장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라주까의 말을 듣고는 정신을 차렸다. 마우리아왕국의 국새는 단 한 사람 오직 아쇼까왕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도장이었다. 라주까는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친위대 조장에게 주면서 말했다.

"밀봉하게. 부왕님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별 수 없는 일이네."

"예, 그러나 제 손으로 차마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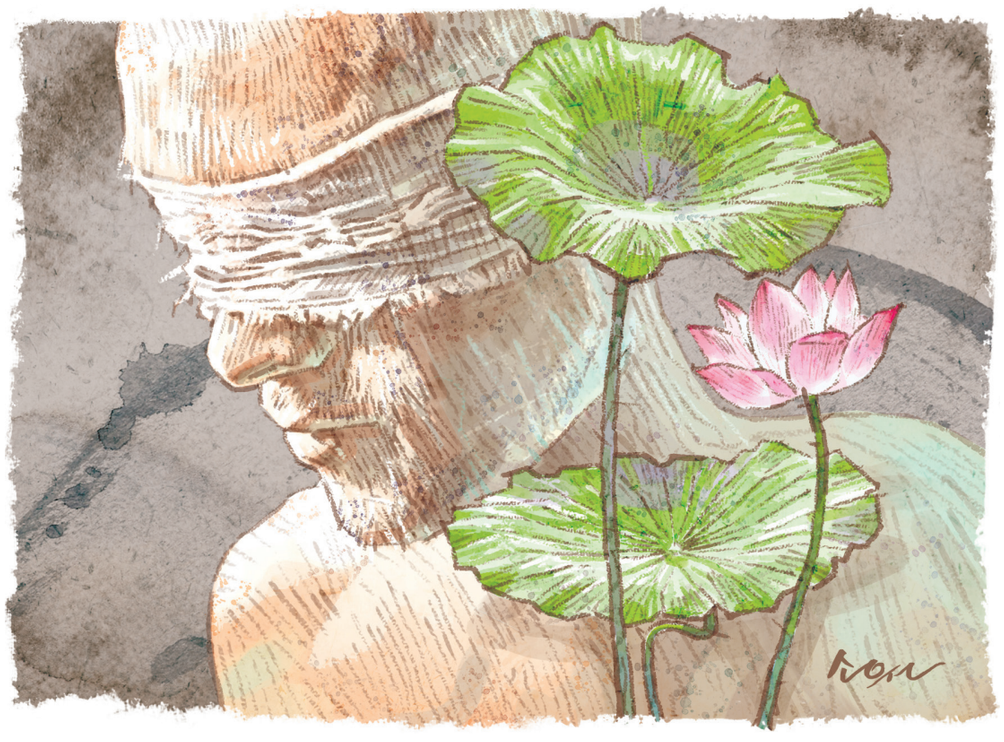
"그렇다고 내가 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친위대 조장은 밀봉한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들고 진퇴양란에 빠졌다. 아무 것도 모르는 꾸날라 부왕에게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직접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탁실라를 떠날 때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보내버릴까.'

부왕을 보좌하는 대신회의(大臣會議)를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라고 칭했다. 친위대 조장은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전하려고 결심했다. 아쇼까왕의 명은 결국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꾸날라 부왕은 특사 일행에게 환송연을 크게 베풀어주었다. 라주까는 일찍 칭병을 하며 자리를 떠버렸고, 친위대 조장은 연회 내내 마음이 편치 못해 술만 마셨다. 무희들의 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악단의 연주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꾸날라 부왕이 공후를 연주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연회가 파장이 되었을 때였다. 친위대 조장은 빠우라 자나빠다회의에 참석하는 한 대신을 뒤쫓아 가서 밀봉한 봉투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대신님, 이것은 대왕님의 명령서입니다. 빠우라 자나빠다회의 때 보셔야 할 명령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내일 낮에 빠우라 자나빠다회의가 있습니다."

"라주까께서도 알고 계신 일입니다. 반드시 회의 때 보셔야 합니다."

"라주까께서 알고 계신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술에 취한 대신이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손을 허우적거리며 받았다. 비로소 친위대 조장은 안도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데다 꾸날라 부왕에게 직접 전하는 것만은 피했기 때문이었다.

특사 일행은 동이 트는 꼭두새벽에 탁실라성을 나섰다. 혹서기로 접어들었으므로 새벽에 이동하고 한낮에는 오침으로 피로를 풀어야 했다. 친위대 조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쇼까의 명령서를 받은 대신이 한밤중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서였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도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빠우라 자나빠다회의는 특사 일행이 옛 꾸루국 땅에 도착했을 무렵에야 열렸다. 친위대 조장을 만났던 대신이 아쇼까의 명령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대신들 대부분이 경악하면서도 달갑잖은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한 대신이 아쇼까왕의 명령서이니 꾸날라 부왕에게 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쇼까왕의 명령서였으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의 명령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 꾸날라 부왕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명령서를 받아든 꾸날라 부왕이 조금도 아쇼까왕을 원망하지 않고 복종했다. 당연한 일 같기도 했다. 꾸날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원망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대왕님 명을 따르겠소. 의원을 불러서 내 두 눈을 뽑게 하시오. 그런 뒤 나를 성 밖으로 추방하시오."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공개한 대신이 울면서 꾸날라 부왕에게 물었다.

"대왕님께서 주신 공후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떠나도록 해주시오."

라주까도 흰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나는 내 눈 때문에 고통스런 운명을 맞이했던 것 같소. 내 눈이 없다면 고통스런 운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소."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탁실라에 와서 노인이 지팡이를 붙잡듯 의지해 왔던 사문이 있소. 성 밖 옛 사원 터에 머물고 있는 사문이오."

잠시 후 사문이 기마군사의 말을 타고 오자, 꾸날라 부왕에게 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사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적이 일어났다. 왕궁의원이 날카로운 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꾸날라의 오른쪽 눈을 뽑아냈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꾸날라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꾸날라의 왼쪽 눈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문이 소리 내어 말했다.

"부왕이시여, 그대는 한 눈이 뽑히는 동안 아름다운 눈의 무상함을 관하여 수다원의 도를 얻었고, 또 다른 눈을 뽑히는 동안 거듭 무상함을 관하여 사다함의 도를 얻었소. 부왕이시여, 사문은 육안을 버린 자만이 고귀한 법안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오."

이윽고 사문은 두 눈이 뽑힌 꾸날라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 밖의 옛 사원 터로 데리고 갔다. 기적을 본 왕궁의원도 뒤따라갔다. 꾸날라의 두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계속〉

